

최근 통화량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 정책당국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통화의 유통속도가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통화가 풀리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중에 통화의 풀림이 많아지면 내년에 우리는 물가문제와 함께 거품경제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둘째, 정책당국은 11월 중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떤 사람들은 금리자유화로 금리는 상승할 것이라고

아니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통화성장을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지금이 통화성장을 적정수준으로까지 하향조정 할 시기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에 우리는 물가문제와 함께 거품경제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둘째, 정책당국은 11월 중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떤 사람들은 금리자유화로 금리는 상승할 것이라고

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금리자유화를 한다면 통화량을 풀어 금리를 풀어내리라는 정책은 기업위주의 성장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 우리 나라는 너무나 오래동안 기업위주의 성장정책을 끌어왔다. 그것도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사람들의 복지를 추락시키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까지 말이다. 이제부터는 어느 한 계층의 이익만을 위한 금융정책은 시행되어야 한다. 물가가 오르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 투자는 이자율만의 함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다른 모든 조건들이 일정할 때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를 어느 정도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조건들이 변하면 실사 이자율의 하락이 있더라도 투자는 증가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노벨경제학자인 토빈(J. Tobin)은 "투자이론"을 제시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토빈의 "투자이론"에 따르면 생산요소의 가격상승으로 기업을 다시 만드는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투자는 위축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은 몇년전에 비해 엄청나게 올랐다. 그래서 기업들이 공장을 하나 건설하려 해도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금리가 좀 하락했다고 해서 기업들이 공장을 더 세우고 시설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토지가격을 더욱 안정시키는 정책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금리비용보다 공장건설이 소요되는 엄청난 토지가격이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토지는 생산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토지의 가격을 더욱 낮아지게 하는 정책은 소홀히 하거나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말을 서슴치 않으면 금리비용만을 내재하는 것은 큰 숲의 조그마한 나무를 보고 하는 말이다.

셋째, 지금은 경기부양책을 쓸 시기가 아니라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할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통화성장을 22%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가를 희생했다는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통화의 유통속도도 정상과 되고 있으며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데 통화성장을 22~22%로 유지한다면 내년 중반부터 우리 경제는 또다시 실속도 없이 겉멋만 부풀고 오르는 거품경제의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1~2%의 성장률로도 만족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7%의 성장을 고집해야만 하는가? 성장과 안정을 조화시켜야 한다. 적정성장이 필요하다.

사설

종강과 새로운 각오

2학기가 종강단계에 들어서면서 매년 그러했듯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과 겹쳐 공연히 바쁘고 이수선한 기분이다. 돌이켜 보면 1993년은 우리 동국인 모두가 과거와는 다른 여러가지 의미가 있었던 해로 기억될듯 하다.

금년도 초반 문민정부의 등장과 국가 사회적인 변화분위기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1학기 내내 학내문제들로 갈등을 보였고, 그 결과 2학기 역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개혁추진은 제대로 실현해 보지도 못한채 담보상태로 금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대학이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구성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국이라는 우리의 학문터전인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이용될 것은 아니었는지 모두가 겸허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특히 국제화·개방화라는 세계적 조류와 맞물려 한국사회 역시 본격적인 개혁시대에 돌입되어 있고, 자유화와 민주화를 전제로 대학 역시 21세기를 대비한 자기혁신의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의 학과가 상대평가되고 있고 교수평가가 이루어 지는가 하면 비야호로 대학전체에 대한 종합평가가 곧 이루어 질 전망이다. 한마디로 구태의연하게 안주하거나 비생산적인 자세로는 대학 또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내년도 다그친 대학평가인정제라는 엄연한 사실을 철저히 대비하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부족에 책임을 돌릴수 있는 국립대학과는 달리 우리처럼 재정난의 1차적 책임을 학교법인이 지어하는 사립대학들은 경쟁체제 도입이 대학존재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이것이 국내차원만이 아니라 조만간 국제적 경쟁시대에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단순하게 2학기 종강이후의 긴 겨울방학을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경우 대학종합평가기준의 어느 항목도 자신있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5년도 평가신청을 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이에 반하여 다른 대학구성원들은 아직도 종합평가의 심각성을 인식 못한듯 여전히 반발적이고도 소모적인 논쟁에 침잠해 있는 실정이다. 이제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만이라도 한방향으로 모아지도록 동국인 모두의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

"사회 각부문중에서 교육계의 개혁의지가 가장 미약하다"라는 비판은 어쩌면 우리 동국인 모두가 음미해야 할 절실한 문구가 아닌가 싶다.

팽배한 내부갈등의 위기상태는 물론,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투쟁 또한 개혁 발전에는 이렇듯 없이 여전히 답습되어서는 안된다. 2학기 종강과 함께 한해를 마감하면서 교수·학생·학교·계단간에 노출되었던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모두의 슬기를 모아 공동체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지금까지의 불협화음을 기용삼아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대학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동국중흥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실천하며 걱정하는 동국인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겠다.

성장·안정 조화한 정책입안 시급

거품경제의 도래를 경계한다

첫째, 통화성장이 적정수준보다 너무 높으면 내년에 심각한 물가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통화량의 과도한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경기침체가 심각하거나 통화의 유통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때는 통화량을 좀 증가시키더라도 물가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통화의 유통속도는 정상과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위축되었던 사채시장도 거의 정상과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어느 정도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축자는 없어서 못할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구미 공단은 설립이래 가장 좋은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을 때 통화의 유통속도는 감소했고,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통화의 유통속도가 정상과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유통도 그리 딱딱한 게 아니다. 경기도 살

때문에 통화량을 늘려서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한다. 진정한 금리자유화는 금리를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것이다. 금리를 풀어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고 시장기능에 개입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금리 자유화가 아니다. 적절한 통화성장을 유지하면서 금리를 그야말로 시장기능에 맡겨 둘 때 전체 경제의 자원배분은 정상과 될 수 있고 국민경제의 복지는 향상될 수 있다. 금리를 자유화 한다는 명목하에 통화성장을 턱없이 높이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부급생활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생계비(cost of living)는 턱없이

어려워 지는 서민층을 너무 오래동안 무시해 왔다. 기업을 위한 성장위주의 정책도 재음미 해볼 시기가 되었다. 물론 성장은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화성장을 22%대로 유지하면서 물가오름에 심리를 자극하고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지도 모를 통화증발정책은 이시점에서 심시숙고 해야 한다.

셋째, 금리만 낮아진다고 해서 투자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신경제' 1백일계획을 추진하면서 규제금리를 거의 3%나 내렸다. 그리고 통화량도 많이 풀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투자는 별반 싹트지 않다. 이는 무엇

이유가 없다. 36살의 나이에 6살짜리의 지능을 갖고 있는 지적인들이 '출판협회'의 이름으로, 아직도 담당하게 '매절'이라는 출판 평행을 고집하고 싶어하는 출판가 아니라면 그런 일은 내일바가 아니라면 서슴치 않아야 할 지적 단체들! 우리의 출판계는 이런 무책임한 구성 요소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제 경쟁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가 과연 경쟁대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질주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지금 당장 저자들이 읽은 감에서 깨어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국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사회는 '총체적인 부정부패의 늪'에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출판 시장을 선진국에게 점령당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 문화를 지배당하게 되는 결과라 되기 때문에, 나는 저자, 자들의 귀에 확성기를 대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저작자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라고...

선진국일수록 저작권이 신성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저자들이 권리를 행기면 서 저작자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등한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 2 유명무실해진 지적소유권

너무 태만했던 저작자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1967년에 제정되었으나 법으로서의 구실을 전혀 못하다가, 1987년, 외국의 출판 시장 개방 압력에 밀려서 법을 개정할 후야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우리 저작권법의 나이는 36살이지만, 그러나 이제 겨우 6살짜리 어린애의 지능과 경험을 갖고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엄연하게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으나마나했다는 것은, 그동안 출판업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서슴없이 지적했지만, 이 나라의 저작자(선비)들이 그것을 용서하지않아서 불법을 조장했다는 뜻이 되는데, 출판사들이 저작권법 위에 군림했던 대표적인 불법 행위라 '매절'이라는 출판 평행을 들 수 있다. 유명 작가들은 고로나 인세를 받는 것 보다 출판하는 일 자체가 급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출판사들이 몇몇 안되는 고려를 주고 원고를 뺏어버리는 출판 계약을 '매절'이라고 한다. 작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억울하지만

한 신진 작가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문인협회', '소설가협회', '만화가협회' 등의 저작 단체들은 '매절'이라는 출판 평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이 '매절'이라는 출판 평행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엄청난 피해자가 속출했던 것이다.

법으로 확실하게 보장돼있는 권리와 최소한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조차도 그토록 태만하게 방치해 버렸던 저작자들이었다면, 저작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는 나라가 망해버릴 정도로 형편없었지만, 그러나 '선비정신'이 도도하게 살아있었기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선비(저작자)들은 출판이 아니라 '매절'이라는 출판 평행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엄청난 피해자가 속출했던 것이다.

법으로 확실하게 보장돼있는 권리와 최소한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조차도 그토록 태만하게 방치해 버렸던 저작자들이었다면, 저작자

여유가 없다. 36살의 나이에 6살짜리의 지능을 갖고 있는 지적인들이 '출판협회의 이름으로, 아직도 담당하게 '매절'이라는 출판 평행을 고집하고 싶어하는 출판가 아니라면 서슴치 않아야 할 지적 단체들! 우리의 출판계는 이런 무책임한 구성 요소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제 경쟁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가 과연 경쟁대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질주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지금 당장 저자들이 읽은 감에서 깨어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국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사회는 '총체적인 부정부패의 늪'에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출판 시장을 선진국에게 점령당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 문화를 지배당하게 되는 결과라 되기 때문에, 나는 저자, 자들의 귀에 확성기를 대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저작자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라고...

선진국일수록 저작권이 신성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저자들이 권리를 행기면 서 저작자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등한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매절'을 인정하는 무용지물의 법

저작자 나서 최소권리보장 적극요구해야

는가하면, 출판권을 제3자에게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것이다. 일단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거나, 작가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남아있지않기 때문에, 출판업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책을 출판해주기만을 고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가 말이 되지않는 출판업자들만의 목적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30년째이 나 손속되는 동안 대학을 갖 졸업

로서의 의무나 사명감을 지키는 일에는 얼마나 동원했는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선비 정신만 살아있다면...

불과 수십년 가지만 해도 이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으로 불렸었는데, 그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에 '선비정신'이라는 것이 엄연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는 나라가 망해버릴 정도로 형편없었지만, 그러나 '선비정신'이 도도하게 살아있었기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선비(저작자)들은 출판이 아니라 '매절'이라는 출판 평행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엄청난 피해자가 속출했던 것이다.

법으로 확실하게 보장돼있는 권리와 최소한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조차도 그토록 태만하게 방치해 버렸던 저작자들이었다면, 저작자

제발 깨어나십시오!
이 나라가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

東國漫評

김상남



7시 출근, 4시 퇴근— 회사에서 획기적으로 도입, 실시하는 조기출퇴근제로 삼성인의 오후가 조금 특별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창 바쁜 오후 4시, 삼성인은 그날의 업무를 정리하고, 퇴근을 알리는 방송을 들리며 한 해 회사를 나섭니다.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여가시간은 자기개발과 휴식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실시한 조기출퇴근제— 요즘, 삼성의 전 임직원들은 퇴근후의 여가시간을 활용해 그동안 이렇게 저평계로 소홀히 했던 외국어공부, 취미생활 등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생활을 찾게 되었습니다. 삼성인은 오후 4시가 되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감한 제도개혁과 집약경영으로 초일류기업을 추구하는 삼성— 삼성은 끝없는 도전과 자기혁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와 만나고 싶습니다.



오후 4시 이후— 삼성인의 뒷모습엔 표정이 있습니다.

'93년도 공채신입사원



글쓰는 순서

1. 일제하 중앙학림의 민족해방투쟁
2. 사상의 불꽃, 김중배
3. 독재에 쓰러진 젊음, 김중배
4. 평범한 투사의 삶과 죽음, 노일현

70년대 유신은 한국사회의 누적된 모순의 반영이었으며 정치적 반대세력을 폭력으로 제거하면서 그 권력체계를 유지하였다. 사회, 경제, 정치가 결합된 구조적 모순은 급격히 심화되었다.

정권은 대학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탄압을 가해 왔으며 암울한 이 시기에 대학은 자기분화과정을 겪으면서 이원화되기에 이르렀다. 시대적 모순과 부정에 맞서 항거하는 용기있는 소수와 고인마는 다수가 바로 그것이었으며 시대현실에 대한 실천적 지성의 성숙은 호국단체 제등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대학의 사외에 대한 비편적 기능과 창조적 역할은 필사상태에 빠져 들었다.

70년대말 가중되는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모순의 정세와는 유신체제의 몰락을 가져왔으며 부마 민중항쟁에서 보여진 민중의 운동역량은 대학인이 안고 있는 실천적 역량의 한계를 압도하는 역사에 내포되었다. 민중의 고양되는 운동과 함께 대학은 본연에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80년대말 민주화 투쟁의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인간을 우리는 소위 투사라 일컫는다.

'노일현' 그 또한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 동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살아온 투사였다. 그 시절엔 아주 평범했던 투사의 한사람이다.

그의 삶을 통해 그시대의 현실과 동국의 모습을 찾아보려한다.

그는 77년에 본교 전산과에 입학하여 본교학생운동의 뿌리라고도 일컬어지는 특색이던 '목요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목요회에서는 전한시대를, 불교 유신론 등의 책을 읽고 매주 목요일에 독서토론회를 했다.

78년 6월 30일 5-6월에 뿌려진 유인물들과 6-28 광화문 연합시위 이후 학교당국과 사찰기관이 검열을 실시하여 이 우편물에서 지방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적은 유인물을 첨부하여 보내 편지가 적발되어 이영우(정외 4), 이호성(정외 2) 등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른바 목요회 사건이었다.

79년 10월 26일 18년의 유신독재 체제가 중정동의 총성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졌다.

10.26 이후 게임력이 떨어져 각 대학은 휴교에 들어갔다.

이로써 학생운동은 또다른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휴교기간 중 새얼장과 학회장 등 5인이 모여 학원자율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점차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80년 1월 18일 30여명의 학과대표, 새얼대표가 모여 '총학생회부활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5일 집행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장에 정기선(정외 4), 총무에 노일현(불교 4)을 선출했다.

이들은 1월 28일 학생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계속되는 학원사찰과 기관원출입의 중지, 학생지도과 폐지, 학칙·회칙 개정문제, 제적학생의 전원 복교 등을 논의하고 2월 11일 학원자율화와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회칙과 학칙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시에 총학생회 체제가 붕괴되고 학도 호국단의 체제에서 학생들의 무관심속에 거의 이틀만의 학생자치 기구가 운영되어 목요회, 만해사상연구회, 탈출반, 누이론 연구회 등의 씨름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원자율·독재타도의 선두에서...

학도호국단 철회 총학생회 부활 기틀 마련



◇ 80년대 민주화를 갈망하던 동학의 학생들은 유신정권의 학원타락책이던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총학생회를 부활시켰다. 사진 왼쪽은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노일현.

의견이 수렴되었고 80년 4월 2일에는 1천5백명의 학생들이 모여 학생총회를 열기도 했다.

노일현은 이러한 씨름활동을 통해 당시 현실속에 대한 인식과 민주화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고 총학생회부활준비위원회' 총무로서의 활동을 충실히 해 80년 총학생회 80년 10월 24일은 1학년 문무대 입소일이었다. 그리고 25일 제5중화국 헌법을 통과시키는 국민투표가 있던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날 노일현(불교 4), 이희선(불교 4), 김지형(불교 4), 안원규(전산 2)는 언론을 통해 애국애민의 비범의 자유와 알 권리를 박탈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모두 구속됐다.

이로인해 노일현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대안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1년 8개월간의 옥중생활을 바치고 만기 출소했다.

당시는 그러했다.

일마침 5-6공 청문회가 있었고 요즘 문민정부시대에 5-6공 과거군

사정권정신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으로 5공화국의 비리가 입증되었지만 당시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명목으로도 옥중생활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다.

노일현. 그는 만기 출소후 대학을 떠났다.

그러나 이때부터가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대졸연등에서 조직국장으로서 활동하고 한국불교의 개혁을 위한 청년 불교운동에 심혈을 기울이며 82년 경각사 청년회를 창립했다.

또한 도서출판 여래를 설립하여 현대 한국불교, 현대불교의 사회인식, 사랑과 평화의 마르티네양 생명의 연꽃, 로자록생부르크등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나름대로 불교개혁 운동을 벌여 나간 83년 11월 13일 불의의 교통사고는 젊은 노일현을 앓아갔다.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한다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투사의

삶, 그리고 민주화를 외쳐야 했던 현실을 직시할 수는 있으리라.

스물 여섯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가 스물다섯이 되던 해에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쓴 글이 가슴속 깊이 적셔진다.

내 스물다섯, 모든 시절을 흘러 고인 고독을 모아

그대의 검은 두눈에 담는다.

내 걸었던 가난한 길을 끊어보던 산의 손이런 입김을 올려

그대의 어깨에 입맞추고

내 부를 모든 피가 흐르고 눈물이 마르는 진실의 노래

그 감회를 걸어 그대의 컵속에 흘린다.

사랑하는 이여 일각도 쉬지 않고 그 맹목에 일해온 내 가슴속 붉은 마음의 그릇.

그 맹목에 그대를 안는다.

가디라진 침묵하고 눈물을 짓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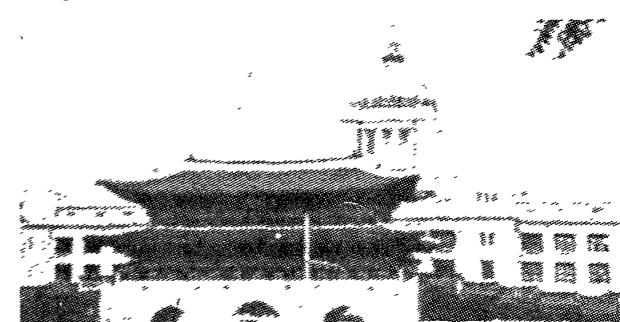
아름다운 밝혀준 그대 따뜻한 손길

밝은 봄에 내가 간다.

만길 그대 안고 가리라.

(양수정 기자)

박물관 '선철거 후건립' 둘러싼 논쟁



◇ 현재 중앙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보관 유물의 안전한 이전 유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 11월1일, 2일 경주캠퍼스 교내에서 중앙박물관 임시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하여 이틀만에 1천6백여명에 이르는 서명을 받아 서울의 중앙박물관 임시이전 반대 대책위로 보였다. 이것은 문화도시에 위치한 동국대학 학생들의 의식수준을 잘 반영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며칠후 11월 5일에 문화체육부장관의 중앙박물관 임시이전 결정 발표는 우리들에게 실로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조선총독부건물(현 국립중앙박물관) 철거가 논의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였고 그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존과 철거의 논리가 팽팽히 대결해 왔었다. 철거를 하자는 쪽은 '한 나라 문화의 상징인 왕궁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새운 건물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민족정기의 구현과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하는 문명정부가 되어야 한다. 문화유산 시대 상징인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우리 문화유산이 보관되어 있

다한 그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철거론과 이에 반대로 보존을 주장하는 쪽은 '현재의 경제를 생각할 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총독부건물을 없애는 역사는 숨길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역사의 한부분이고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산실이다. 영적 계기가 과거만을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 등의 의견으로 논쟁을 하여 왔다. 그러나 8월9일 김영삼 대법장은 민족 자존심과 민족 정기의 회복을 위해 현재 국립박물관인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해체를 지시하였다. 이상의 빛나는 유산이자 민족문화의 정수인 문화재를 구조선총독부건물에 보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후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구조선총독부 건물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어 수십만점의 문화유산이 보관 전시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선 철거 후 박물관 건립, 선 박물관 건립 후 철거'라는 두가지 대립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어 계속적인 언론의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임시이전으로 결정이 나고 그것도 2개월의 이전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을 보며, 전시대와 전혀 다름없는 졸속과 비민주성을 지적할 수 없을 수 없다. 우리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해 구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시급하고 필요한 만큼, 우리 민족사의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을 제대로 가꾸고 관리하는 일 또한 민족정기를 높이는 데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한진호 (고려미술사학과·조교)

평약로

"바로 이 내용은 올해 자연과학대 학생회 선거 우리 후보진영에서 제시했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해명해 주십시오"

제11대 총학생회 선거일을 사흘 앞두고 은방골에서는 유권자들이 어리둥절 하게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아침부터 배포된 총학 기호2번측의 정책자료집 내용 가운데 제7대 자연대 선거에서 낙선된 기호2번측의 정책내용의 일부분을 복사(?)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를 야기시켰다.

자연대 선거당시 정책을 맡았던 송유경(생물3)은 해명을 요구하며 "이미 발표된 정책내용이 출처의 기명도 없이 다시 사용되었던 점과 처음 정책을 생산했던 우리측과 사안이 통보, 논의도 없

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기호2번측은 "낙선된 후보의 좋은 공약을 다시한번 부

표절된 공약



각시절 의도였을뿐"이라고 해명했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끝에 사과문을 언약속보에 포함, 게재하는 한편 앞으로 남은 정책자료

집에는 출처를 기명하기로 약속함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사건이 총학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사항에 합의했다.

쟁방의 논의 끝에 일단 해결된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과정에 일어난 사소한(?) 사건쯤으로 생각하기에는 깨닫지 못한 감이 있다.

정책선거의 부재, 학우들의 무관심속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은방골 선거무대에 '표절된 공약'들이 또다른 형태의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은 아닐까?

앞으로 선거에서는 충분한 고민과 문제의식속에서 자신들의 공약이 실현가능성을 유권자들의 손에 넘겨지기전 정책자료집을 꼼꼼히 검토하는 자세를 가지기 바란다. 이는 앞으로 계속될 은방골 학생회 선거를 올바른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김태성 기자)

컴퓨터이야기

S/W의 표준화

컴퓨터 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이루어진다. 하드웨어에 비해 부가치가 막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하드웨어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구조화나 객체지향 기술의 출현으로 소프트웨어 기술도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등 각종 분야에 적용하는데는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표준화 문제로 표준화는 국가와 국가간의 정보교환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컴퓨터의 호환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협

(대학원 컴퓨터과 석사과정)

집에는 가리는 컴퓨터가 있고 학교에는 '나'라는 컴퓨터가 있다. 학교의 나컴퓨터에서 리포트를 작성하다가 시간이 늦어 집에 갔다고 하자. 이 때 '가'와 '나'컴퓨터 사이에서 서로 정보교환이 안된다면 어떻게? '나'에서 새롭게 작업을 하던가, 다음날 학교에서 와서 '가'에서 작업을 계속하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표준화가 이루어질 경우 집에서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준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가 크게 위축되고, 인력 및 비용의 중복투자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의 소프트웨어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접두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 주는 지렛대로서, 정부와 학계, 기업, 연구소 등 각계의 다각적인 연구와 협의를 통해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외국으로 수출될 날도 그리 멀지는 않다.

최은협

(대학원 컴퓨터과 석사과정)

POSCO메세지 중앙관

半字不成

우리 옛말에 半字不成이란 말이 있습니다. 글자를 반만 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로서,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무엇이나 되지 하다가 말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창 중량을 준비하는 지금, 힘찬 출발 못지않게 1년간의 대학생활을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힘차게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마지막 한 획까지 정성껏 써 보십시오. 성실한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의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품질우선으로 최대의 고객만족
철강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으로
세계일류기업의 위상을 다지는 포항제철-
주요품목에서 국제품질보증규격인 ISO 9002 인증을
획득하여 제철회사로서는 세계 최대 품질을 기록하였습니다.
저희 포항제철은 품질우선과 고객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문 진입로 혼잡, 해결 못하나

일방통행화... 현실적 대안일 듯

학교측, 적극적 개선의지 보여야

본교 후문 진입로가 교통량 과다로 큰 혼잡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일병원과 본교 후문사이 폭 6m 길에는 충무로와 퇴계로의 교통체증을 피해 진입하는 차량으로 연일 만원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등·하교 학생들이나 병원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충무로 지하철역이 인접한 관계로 학내구성원들의 통행이 많은 이 길은 5년전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 당시 제일병원 지하실 공간을 확보해 기존 4m에서 2m가 확장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도차도로 이용해 통행하는 이들에게 사고위험을 주고 있다.

더구나 상가 길 주변에 밀집해 있어 이들이 상점앞에 내놓는 잡화나 진열대등으로 어렵게 길가로 통행하는 이들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이나 중부경찰청 관할 관공서는 특별한 대책 마련을 세워놓고 있지 않다. 이와는 별도로 중구청측은 지난 88년부터 계획된 본교 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한남동 로터리부터 퇴계로에 이르는 15m, 30m 도로 확



◇인도와 차도의 구분없는 도로는 상가의 진열대, 진입차량의 증가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장공사추진을 연장적으로 진행중이다.

이미 이계획에 따라 후문 진입로 사거리에서 2차선 소방도로가 확장되었으며 앞으로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후문주변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후문주변 도로가 확장되면 진입로측은 더욱 혼잡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해결방안은 두가지 정도가 제시될 수 있는데 첫번째 방안은 도로의 확장이다.

그러나 5년전 도로확장때 지하실부지를 내놓은 제일병원측이 공간을 내놓을 리 없고 학교측도 좁은 후문 통행공간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인 이상 가능성이 없는 형편

이다. 더구나 중구청측도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점포부지를 매입할 예산마련이 힘들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단기적인 방안일 수는 있으나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 방안은 진입로를 일방통행화하는 방법이다.

일방통행화할 경우 제일병원측의 이용객 감소우려로 인한 반대급부도 예상된다 이는 큰 장애로 나설 근거가 없다.

현 상태에서는 입산부나 환자도 병원입구의 혼잡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처지이고 보면 병원측과 협조해 관계당국에 일방통행화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도시정비과의 한 관계자도 본교 진입로의 혼잡을 고려해 일방통행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당국은 후문진입로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이의 시정과 일방통행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시급히 관계당국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후반기 취업준비 조인



치열했던 대기업중심의 신입사원 채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와 때를 함께하여 중소기업들이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직 적장을 선택하지 못한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취업은 꼭 해야되는데 적성에 맞지 않다면 대기업의 한정된 채용규모때문에 다른 기회를 엿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중소기업은 확실히 도전해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있다.

정부가 대기업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인재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꽃이고, 대

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핵이기도 하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할 경우, 수천가지의 부품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대의 자동차를 이루는 부품들은 바로 자기 특성을 지닌 중소기업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은 무한한 성장가능성 때문에 매력 가는 곳이다. 중소기업도 확실히 성장하면 대기업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대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일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선택은 후회 없을 것이다.

최근들어 직장선택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무조건 대기업에

입사해서 부푼역할을 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회사내 모든 분야에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성장을 느끼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층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개인의 임무가 주어져 있어 쉽게 개발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직장이라는 데서 이제 망설임은 시간낭비가 아닐까도 생각해 본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중소기업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회사의 특징, 성장 가능성, 적응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곳이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이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발휘에 문제가 있다. 이는 개인은 물론 국가

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예전과 달리 중소기업들이 학교 당국에 적극적으로 취업 유치를 벌이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이에 발맞춰 본교 취업과에서는 취업예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알찬 기업체들의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총장님을 비롯하여 교수·직원들과 총학 간부 및 종주원들은 물론이고 총동창회장단 및 동문기업인들까지 총력을 기울여 후반기 취업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만큼 취업예비생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좋은 직장이 결정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문 기 곤 (학생처 취업과장)

인터뷰

후원회 발족 기념사업진행 박차

“만불전 조성계획으로 2천만 불자참여 유도할 터”



박 동 기

개교1백주년기념사업 본부장

지난 1월 신설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본부가 올 한해 기념사업의 발족, 개교백주년기념사업회의 개칭, 얼마전 후원회 발족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후원회발족으로 활발한 모금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개교백주년 기념사업본부의 박동기 본부장을 만나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의 설치 의의는
=개교 1백주년을 앞두고 대학 발전을 위한 동국학술문화관, 수도권 불교병원, 분당한방병원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개교백주년 기념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면
=현재 추진중인 동국학술문화관, 분당한방병원, 불교종합병원 건립 이외에도, 교내에 대법당 설치, 만불전 조성, 개교 1백주년 기념관 등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개교백주년 기념사업 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후원회의 역할이라면
=우선 개교백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가시화되고있는 동국학술문화관, 분당한방병원, 불교종합병원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모금사업이 첫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후원회의 구성과 이의 의의라면
=10만 동문을 대표할수 있는 총동창회의 회장단과 임원진을 포함한 동문인사들과 22개 각 종단의 종장, 총무원장 등 한국불교를 대표할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이로인해 동국발전을 학교뿐 아니라 동문, 불교계의 과제로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원회 결성을 계기로 10만 동문과 2천만 불교도의 동국발전의 적극 참여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

—모금사업에는 10만동문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2천만 불교도의 참여를 유도하는것도 중요하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가장 큰 사업으로 만불전 조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방병원, 불교종합병원 건립부분을 직접적으로 2천만 불교도에게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만불전 조성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실질적인 모금활동을 벌일것으로 예상되는 후원회의 활동 방향은
=현재 총동창회 임원진, 22개 종단 협의회 대표로 1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후원회의 꾸준한 모금사업을 위해 1~2개월에 한번씩 기획행사를 마련할 방침이다. 12월 말까지 기획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 내년 부터는 기획행사를 통한 실질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준 기자)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⑬한의대 문준전 학장



계절학기 이용으로 유급없을 듯

지난 84년 한의과대학으로 개편된 이후 민족의학을 계승하여 동양학의 산실로 그 규모를 키워온 한의대는 최근 한약본성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전공문제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킨 바 있다. 이에 한의대 문준전(한방 병리학)학장을 만나 이의와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한의대 설립취지와 교육목표는
=한의대는 민족의학을 계승하여 그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함과 아울러 과학화를 지향하여 제3의의 창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본교의 건학 이념인 지혜와 개방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민족과 인류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의 유급발표는 했는데, 확정발표는 아직이다. 어떤 의미인지
=교육부에서는 1학기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한학기 유급을 결정하고 1학기 내용을 보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계절학기를 개설할 방침이다.

—수업결손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고 있는가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1학기 내용을 보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계절학기를 개설할 방침이다.

—한의대 학문연구와 교육적인 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은
=기초의학분야에서는 스키초의

급시킬 계획이므로 신입생들에게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임상실습공간 부족과 그 대책은
=현재 방배동병원이 실습공간인데 12월중 분당병원이 확장되면 임상실습공간이 확대될 것이다.

—학생들의 유급·진급에 따른 교칙과 상충되는 부분과 그에 대한 수정방안은
=현 관련교칙은 1학기 학점을 한 과목이라도 취득하지 못하면 유급이지만 학기제로 고령경우 1학기에 취득하지 못한 학점은 다음학기에 보충할 수 있다. 계절학기등 세부사항을 교무처와 협의해서 진행중이다.

—전국 한의과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진급에 대해 논의한 결과는
=학내제를 학기제로 개정해서 계절학기 운영으로 1학기 학점을 취득후 정상적으로 진급하도록 결정했다.

—수업결손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고 있는가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1학기 내용을 보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계절학기를 개설할 방침이다.

—한의대 학문연구와 교육적인 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은
=기초의학분야에서는 스키초의

학교실의 활성화와 스키초의학교수 증원 △한의학 연구소의 활성화 △한의학 도서관의 확충 △실현실습실 기자재 확충이 가장 큰 문제이고 임상분야는 임상교육의 내실화와 우수한 의료인력양성은 물론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한방병원의 신설 및 확충이 가장 큰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발전시키려면 국가적으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동양학의 산실인 우리대학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극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재임중 학장으로서의 포부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한의과대학 발전계획을 제출한 바 있거니와, 학습의 국제교류를 위한 수준 있는 연구개발과 국민이 신뢰하는 우수한 한방병원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결집해서 민족의학의 세계화에 발돋움함으로써 동국의 세계화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학업에 열중하여 내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함과 아울러 도덕성을 지닌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 주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여온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달에까지 보낸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통을 받고 어느덧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무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는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약속의 현장입니다.

기술의 힘으로 세계와 겨루는
SAMSUNG
삼성전자

다. 너 완전히 빠져들어 있는 거 아냐? 그렇다고 해도 할 수 없어. 내 동생들은 아직 어리고, 별다른 일은 없으니 어쩌지는 않을 마. 그렇지만, 너, 내 동생들 다 자란 후 내가 파파 할머니 될 때 까지 기다릴 수 있어? 아마 그럴 수 없을 거. 너도 너의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소리를 조금 낮추어 단호하게 덧붙였다. 잘 알려진 집이 목구멍에 들어 붙었다. 그러고, 우리 어머니 역시 너같은 애하고 결혼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우리 어머니, 내 얼굴만큼 큰 예쁘다고 믿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뿐이잖아. 나는 한편 차갑게 웃었다. 여섯살, 너와 똑같이 나마 받아올 직장이 있고, 얼굴 예쁘니까 몸 함부러 굴리지 않으면서, 집안에 틀어박혀 앉아서 살림살이나 잘하고 있으면, 가난한 이도 신랄하리라는 어디서든 좋은 데서 줄을 선다고 믿고있는게 어머니 생각이야. 물론 너보다는 말이. 나는 또 다시 잔인하게 말을 덧붙였다. 좋은데? 웃, 웃기는군. 돈 많고, 학벌 좋고, 애 두세 마리 출아비? 아니면, 한 마흔살이나 낡은 먹은 노총각? 혹시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냐? 그렇지 않다면 나하고는 왜 만나고 있는거지? 왜 대답 못해, 왜?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입술에서 들쭉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그의 등을 의라 끌어 안아 도닥여 주고 싶었다. 너 언젠지 나는 그 생각과는 반대로 더욱 표독스럽게 그를 노려 보았다. 그런 나를 그도 역시 무섭게 노려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

그 눈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 같았고, 아득한 현기증에 몸이 자꾸 쓰러져 왔다. 청년 손이 정신없이 내 몸을 훑으며 돌아다녔고, 나는 아무런 저항도, 미동도 없이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둔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문득 그가 나의 아랫도리를 벗기다 말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 보았다. 그런 그의 눈에 핏발이 서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 나같은 놈한테는 저항도 하기 싫다 이거지? 저항도 할 뉘한테나 하겠다? 이제 그만 달아 오르게 했으니 너도 보고 즐김 가지가 없어졌다 이거군. 이제 더 이상 너한테는 뜻이 없으니 일어서 가라 이거야? 말해봐, 내가 일어서 가지 않고, 여기서 너를 팔장 낸다면, 나는 아무표정도 담지 않은 눈을 돌려 그를 바라 보았다. 어디 한번 애원해 보시지. 고귀한 귀부인이 되실 마나님께서 이 못난 늙은이께 깨끗한 몸으로 팔장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십시오. 말도 안되는 말이야.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뱉고 있는 말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고통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말없이 그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다시 한번 거침 없이 내지를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문득 그 움직임을 멈추고는 주먹을 힘껏 내리치며 씩어 내뱉고, 벌떡 일어나, 하고 토해 내었다. "이런, 똥이네. 화난 사람 같은데?" 그가 한쪽 팔로 나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다른 한 손으로 나의 머리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살마요." 나는 얼얼한 어딘가에 나 자신도 해명할 수 없는 표정이 드러나 있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나는 그때의 그가 차라리 나를 안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그가 나를 안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강렬하게, 나는 그가 내 몸을 안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바보야. 포기하지 말고 나를 안아! 내 몸이 식기 전에 돌아와! 내 안아! 가지 말고 나를 안아! 말야! "아까워서 그래요." "뭐가?" "....." "....." "당신 가슴은 참 예뻐.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런건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탄력 있고, 그리고 따듯하고... 딱 맞아. 참 예뻐!" 그가 침묵을 깨려는 듯 내 머리칼을 만지작 손을, 문득 가슴으로 옮기며 말했다. "당신, 그렇다만 말이에요. 내 가슴에 대한 댓가로 부탁 하나만 들어 줘요." "그래, 들어 주지?" "....." "들어 준다니까?" "나하고 결혼해 줘요." "그럼 수 있어?" "....." "나,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나고 있는 거지?.. 그래, 나도 이래선 안된다는 걸 알고 있어. 나도 당신을 내 곁에 두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당신과 나는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건 아니었잖아?" 그가 곤혹스러움으로 말을 이었다. "그러고, 당신도 그걸 원했던 건 아니었고, 아주 오래 전부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행위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나도 당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

아 봐요. 그리고 이런 데 쓸 돈 있으면... 나한테나 줘요." 나는 나도 모르게 단호해진 말투로 그에게 말했다. 그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라이터에서 피어 오르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기묘한 주홍색으로 물들었다 사라졌다. 그는 담배를 한모금 깊게 들어 마시고 말했다. "이건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당신 편하구요! 그에게 향한 것도 아닌 그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는 의미없는 반말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이런 곳에서 당신을 맞이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주려던 것을 더하거나 빼지는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쓰는 돈이 웬지 나에게는 거기에 더 이상 비참해 질 건 없어. 그래, 차라리 비참해 지는 편이 나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당신, 오늘 조금 이상하군." 그는 담배를 비벼고 내뺄을 향해 돌아 안아 내 불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나는 잠이 깨웠다. "결혼하세요." 그가 잠시 나를 바라 보다 내 머리를 그의 품안으로 가져왔다. 그의 품안에서 어머니의 한약냄새가 났다. "직장 좋고, 돈 많고, 나이도 많은 남자래요." "알았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예전에 잘 짜여진 각본이 하나 있었고, 그런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잖아. 나는 그저 그 각본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의 거드름 사이로 보이는 창가에 저녁 햇살이 길게 목을 베고 커튼사이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아니요, 괜한 애길 했군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원래 감정없는 목소리로 되돌아 왔다. "당신은 그냥 지극히 똑똑이 있었으면 돼요." "사람들은 동전인데 내게 조금씩 생활비를 대어 주면서 당신의 성공을 확인하고, 그렇게 받아가는 내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한 웃음을 지으면 돼요. 지극히 똑똑이 말이에요. 나는 그가 쿨하게 눈봉투가 분명히 내 손에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처럼,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그것을 자꾸만 만지작 거렸다. 전철 안은 붐비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한 손을 이마위로 가져다 말 때와 바라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렇듯 그렇지 않은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라구요. 나는 누구에게인지도 모를 화를 내고 있었다. 당신과 내가 다시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나를 포기하고 최후이며 절이었던 그날 밤 부터, 아니, 그 보다 훨씬 이전부터. "해가 다 떨어졌어?" "....." "그 얘기가 아니었지요. 미안해요. 당신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싶은 생각을 없었어. 그냥 당신을 좀 놀려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에게 결혼하자고 하진 않아요. 그럴 생각도 없어요." "....." "나 이런데 아니어든 돼요. 허름한 여관방이든 좋아요. 당신만 있으면 어디든 좋다는 말따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그러한 말따위 하지 못하는 여자니까... 이런데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싸우러 여관방이 당신과 어울리지 않다면 어디 적당한 데로 찾

무릎에 댄채 엉겨주춤 선듯한 모습을 하고 무릎을 깔고서, 무엇이 즐거우니 계속해서 까르르 까르르 거러머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사랑스런 낯으로 쳐다 보며 아이의 이마를 계속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잠시 동안 그 행복해 보이는 혈육사이를 바라 보다가 문득 어머니의 옆구리에 고개를 잔뜩 파묻고 있었다. 그리고, 까르르 웃고 있는 사내아이의 손은 자꾸만 제 누나의 머리칼을 잡아 당기고 있었다. 두갈로 꿈게 땅아 내린 계집아이의 머리칼이 사내아이의 머모르는 손길에서 풀려나고 엉클어 질때까지 까르르 웃음을 흘렸고, 계집아이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쓰러질 듯 제 어머니의 옆구리에 고개만 파묻고 있었고, 어머니는 사내아이의 머리 손으로 쓸어 올리며 아기를 향해 사랑스런 웃음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계집아이의 몸을 일으켜 잡자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일어나, 일어나 소리치려만 말야. 왜 아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억울해요. 아기가 자꾸 내 머리칼을 쥐어뜯잖아요. 왜 엄마는 내가 아픈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소리치, 그러구 벗어나. 지금 일어나지 못하면 영영 일어나지 못해. 나는 영동한 기본에 사로잡혀 어느 새 계집아이를 대신해 소리치고 있었다. 일어나 소리치. 나는 나예요. 나는 회생물이 아니에요. 나는 꼭꼭각지가 아니에요. 나는 구속없이 내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나일 뿐이예요. 그 소리들은 가담을 대상으로 없고 돌아올 메아리도 없는 것들이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번트를 헛되이 들고 돌아 공허하게 울려 퍼지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었다. 그 계집아이는 어머니의 셔츠 자락을 조그맣게 움켜쥐고, 팔없이 고개를 파묻고 있었다. 어머니가 조금 귀찮다는 듯이 계집아이의 얼굴을 쓰러뜨려 세워 올리자, 계집아이의 얼굴에서 눈물이 베어 나왔고, 울지마. 어머니가 계집아이를 향해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계집아이는 다시 어머니의 옆구리로 고개를 파묻고, 나는 그 아이의 빈약한 어깨 소리없이 들먹여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울음을 내 아주 조그맣게, 두번씩 짙을 지어 흔들리고 있었고, 그 때마다 비 슬듯하리라는 아이의 울음을 한없이 안스럽게 생각 되었다. 그리고 문득,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어 유리창에 비치는 내 모습을 바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잠깐 놀랐다. 초라

하게 처진 어깨위에 갈래 머리의 계집아이가 어깨를 조그맣게 들먹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눈을 몇번 깜박이고 주위를 슬그머니 둘러 보았다. 갈래 머리의 계집아이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유리창으로 시선을 옮겼다. 갈래 머리의 계집아이는 사라져 버리고 이번에는 피곤에 지친 표정의 늙은 여자가 나를 뚫어 건넌다 보고 있었다. 그것은 불꽃없이 주름지고 쓸모없이 늙어 빠진 창녀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나는 누군가 그런 너의 모습을 훑쳐 볼까봐 불안해져서 고개를 숙였다. 전철이 다음 역에 당도하자 나는 슬며시 몸을 돌렸다. 등뒤의 계집아이의 어깨가 끊임없이 들먹여 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고, 나의 눈앞에는 창녀로 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 늙은 창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역에 내리자 싸늘한 바람 한 조각이 마른 풀베개를 톱기며 내 옷깃을 파고 들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나를 따라오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자꾸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몇번씩 고개를 저었고, 그 갈래머리의 계집아이를 떠올리며 나지막하 중얼거렸다. 너도 창녀가 될래. 너도 창녀가 될래? 이쯤되면 전철엔 한 귀퉁이를 누군가에게 쫓기듯 급하게 걸음을 옮기며, 나는 한껏 발음을 흐르는 어둠의 늑 속에서 발을 가누지 못하고 끊임없이 휘청거리며 발을 헛

나를 뻥히 바라보는 여자는 쓸모없이 늙어빠진 창녀같았다. 끊임없이 울먹이는 계집아이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너도 창녀가 될래?

을 이었다.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척, 성녀의 말을 쓰고는 나혼자 달아 오도록 달아올라 안절부절 못하게 해놓고, 그걸 보면서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순결하게 몸을 지키고 있었다구? 몸 함부로 굴리지 않고 깨끗이 있다가 그걸 무기로 늙은이한테 팔러 가시겠다? 그렇지, 그럼 너는 나에게 파본한 여자. 이런 내게 몸을 주면 너는 그 황금같은 몸을 함부로 굴리지 되는 거지. 그는 갑자기 나의 몸을 의라 끌어 당겼다. 그의 딱딱하게 웅얼거리는 손이 나의 스퀘터 자락 속을 아프게 파고 들었다. 그리고 내 두 다리를 힘껏 짓누르며 스퀘터 밑으로 드러난 나의 맨살에 거칠게 얼굴을 들이 대었다. 내 내기야! 난 아무데도 갈 수 없어. 그가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오늘도 여친하군" 그는 이를 자락을 잡아 당겨 나의 몸을 끌어 올려 말했다. "당신, 내가 하지는 대로만 하니, 어떻게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 건 부인에게나 가서 물어 보세요." 나는 가만히 천장을 응시 하며 말했다. "그날 밤은 칠혹처럼 새까맣다. 그의 등위에서는 마른 풀베개가 자꾸 풍겨왔고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밤하늘을 노려 보고 있었다. 자꾸만 쳐다보고 있으려니 눈이 아파 눈물이 고였다. 마른 풀베개와 밤하늘의 어둠이 한데 뒤엉켜 질척한 눈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내 몸은

위해, 그의 품안으로 깊숙히 고개를 물었다. "조금 주먹이 들었을 뿐이예요" "주먹?" 그는 조금 놀랐다는 듯이 물어보았다. "놀랄 것 없잖아요. 이렇게 호화판...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 어울리지 않아. 나는 나를 향해 다 되뇌어 보았다. 그런 나를 그는 슬며시 안아 주었다. "씨발, 차라리 이리저 말라고 소리라도 치면 좋잖아. 차라리 저리 꺼지라고 욕이라도 하면서 발버둥이라도 치면 좋잖아. 나를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 속이 시원하겠나. 그래 좋아, 알겠어. 내 스스로 일어서 가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같이 씩어 빠진 기쁨에 한때 나를 낳시시킬 필요 가 없어. 그래봤자 내 자신만 더 비참해질 뿐이니까. 그는 나에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짧고 굵은 목소리로, 앞으로 내 눈앞에 보이지 마, 그때는 나도 장담할 수 없었어. 라고 말을 던지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의 걸음걸이는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띌만큼 휘청이고 있었다. 그가 걸어서 사라지던 자리를 타고 찬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그제서야 드러난 맨살에 한기를 느꼈다. "똥잖아?" "똥가요." "똥고 있는 거 같은데" "똥창을 것도, 똥창지 않을 것도,

까, 하고 늘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모르겠는게 사실이구...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건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잖아... 더 이상 할 말이 없군. 미안해" 그렇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내가 이제와서 당신과 결혼하는 것은 '우스운'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지요.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나는 그의 곤혹스러운 듯한 표정을 바라보았다. 사랑하고 있다는 말 따위 바라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렇듯 그렇지 않은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라구요. 나는 누구에게인지도 모를 화를 내고 있었다. 당신과 내가 다시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나를 포기하고 최후이며 절이었던 그날 밤 부터, 아니, 그 보다 훨씬 이전부터. "해가 다 떨어졌어?" "....." "그 얘기가 아니었지요. 미안해요. 당신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싶은 생각을 없었어. 그냥 당신을 좀 놀려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에게 결혼하자고 하진 않아요. 그럴 생각도 없어요." "....." "나 이런데 아니어든 돼요. 허름한 여관방이든 좋아요. 당신만 있으면 어디든 좋다는 말따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그러한 말따위 하지 못하는 여자니까... 이런데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싸우러 여관방이 당신과 어울리지 않다면 어디 적당한 데로 찾

아 봐요. 그리고 이런 데 쓸 돈 있으면... 나한테나 줘요." 나는 나도 모르게 단호해진 말투로 그에게 말했다. 그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라이터에서 피어 오르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기묘한 주홍색으로 물들었다 사라졌다. 그는 담배를 한모금 깊게 들어 마시고 말했다. "이건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당신 편하구요! 그에게 향한 것도 아닌 그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는 의미없는 반말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이런 곳에서 당신을 맞이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주려던 것을 더하거나 빼지는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쓰는 돈이 웬지 나에게는 거기에 더 이상 비참해 질 건 없어. 그래, 차라리 비참해 지는 편이 나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당신, 오늘 조금 이상하군." 그는 담배를 비벼고 내뺄을 향해 돌아 안아 내 불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나는 잠이 깨웠다. "결혼하세요." 그가 잠시 나를 바라 보다 내 머리를 그의 품안으로 가져왔다. 그의 품안에서 어머니의 한약냄새가 났다. "직장 좋고, 돈 많고, 나이도 많은 남자래요." "알았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예전에 잘 짜여진 각본이 하나 있었고, 그런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잖아. 나는 그저 그 각본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의 거드름 사이로 보이는 창가에 저녁 햇살이 길게 목을 베고 커튼사이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아니요, 괜한 애길 했군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원래 감정없는 목소리로 되돌아 왔다. "당신은 그냥 지극히 똑똑이 있었으면 돼요." "사람들은 동전인데 내게 조금씩 생활비를 대어 주면서 당신의 성공을 확인하고, 그렇게 받아가는 내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한 웃음을 지으면 돼요. 지극히 똑똑이 말이에요. 나는 그가 쿨하게 눈봉투가 분명히 내 손에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처럼,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그것을 자꾸만 만지작 거렸다. 전철 안은 붐비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한 손을 이마위로 가져다 말 때와 바라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렇듯 그렇지 않은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라구요. 나는 누구에게인지도 모를 화를 내고 있었다. 당신과 내가 다시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나를 포기하고 최후이며 절이었던 그날 밤 부터, 아니, 그 보다 훨씬 이전부터. "해가 다 떨어졌어?" "....." "그 얘기가 아니었지요. 미안해요. 당신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싶은 생각을 없었어. 그냥 당신을 좀 놀려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에게 결혼하자고 하진 않아요. 그럴 생각도 없어요." "....." "나 이런데 아니어든 돼요. 허름한 여관방이든 좋아요. 당신만 있으면 어디든 좋다는 말따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그러한 말따위 하지 못하는 여자니까... 이런데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싸우러 여관방이 당신과 어울리지 않다면 어디 적당한 데로 찾

무릎에 댄채 엉겨주춤 선듯한 모습을 하고 무릎을 깔고서, 무엇이 즐거우니 계속해서 까르르 까르르 거러머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사랑스런 낯으로 쳐다 보며 아이의 이마를 계속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잠시 동안 그 행복해 보이는 혈육사이를 바라 보다가 문득 어머니의 옆구리에 고개를 잔뜩 파묻고 있었다. 그리고, 까르르 웃고 있는 사내아이의 손은 자꾸만 제 누나의 머리칼을 잡아 당기고 있었다. 두갈로 꿈게 땅아 내린 계집아이의 머리칼이 사내아이의 머모르는 손길에서 풀려나고 엉클어 질때까지 까르르 웃음을 흘렸고, 계집아이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쓰러질 듯 제 어머니의 옆구리에 고개만 파묻고 있었고, 어머니는 사내아이의 머리 손으로 쓸어 올리며 아기를 향해 사랑스런 웃음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계집아이의 몸을 일으켜 잡자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일어나, 일어나 소리치려만 말야. 왜 아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억울해요. 아기가 자꾸 내 머리칼을 쥐어뜯잖아요. 왜 엄마는 내가 아픈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소리치, 그러구 벗어나. 지금 일어나지 못하면 영영 일어나지 못해. 나는 영동한 기본에 사로잡혀 어느 새 계집아이를 대신해 소리치고 있었다. 일어나 소리치. 나는 나예요. 나는 회생물이 아니에요. 나는 꼭꼭각지가 아니에요. 나는 구속없이 내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나일 뿐이예요. 그 소리들은 가담을 대상으로 없고 돌아올 메아리도 없는 것들이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번트를 헛되이 들고 돌아 공허하게 울려 퍼지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었다. 그 계집아이는 어머니의 셔츠 자락을 조그맣게 움켜쥐고, 팔없이 고개를 파묻고 있었다. 어머니가 조금 귀찮다는 듯이 계집아이의 얼굴을 쓰러뜨려 세워 올리자, 계집아이의 얼굴에서 눈물이 베어 나왔고, 울지마. 어머니가 계집아이를 향해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계집아이는 다시 어머니의 옆구리로 고개를 파묻고, 나는 그 아이의 빈약한 어깨 소리없이 들먹여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울음을 내 아주 조그맣게, 두번씩 짙을 지어 흔들리고 있었고, 그 때마다 비 슬듯하리라는 아이의 울음을 한없이 안스럽게 생각 되었다. 그리고 문득,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어 유리창에 비치는 내 모습을 바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잠깐 놀랐다. 초라

하게 처진 어깨위에 갈래 머리의 계집아이가 어깨를 조그맣게 들먹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눈을 몇번 깜박이고 주위를 슬그머니 둘러 보았다. 갈래 머리의 계집아이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유리창으로 시선을 옮겼다. 갈래 머리의 계집아이는 사라져 버리고 이번에는 피곤에 지친 표정의 늙은 여자가 나를 뚫어 건넌다 보고 있었다. 그것은 불꽃없이 주름지고 쓸모없이 늙어 빠진 창녀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나는 누군가 그런 너의 모습을 훑쳐 볼까봐 불안해져서 고개를 숙였다. 전철이 다음 역에 당도하자 나는 슬며시 몸을 돌렸다. 등뒤의 계집아이의 어깨가 끊임없이 들먹여 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고, 나의 눈앞에는 창녀로 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 늙은 창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역에 내리자 싸늘한 바람 한 조각이 마른 풀베개를 톱기며 내 옷깃을 파고 들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나를 따라오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자꾸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몇번씩 고개를 저었고, 그 갈래머리의 계집아이를 떠올리며 나지막하 중얼거렸다. 너도 창녀가 될래. 너도 창녀가 될래? 이쯤되면 전철엔 한 귀퉁이를 누군가에게 쫓기듯 급하게 걸음을 옮기며, 나는 한껏 발음을 흐르는 어둠의 늑 속에서 발을 가누지 못하고 끊임없이 휘청거리며 발을 헛

심사평

투고된 소설들을 다 읽고 난 느낌은 허망하다는 것이었다. 품품이 공들여 읽은 만큼 그 느낌이 더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소설을 투고했다고 해서, 다 소설가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운수점을 쳐보듯이, 대학 생활의 추억만들기 쯤으로 여기고 투고했는지 하면서, 이런 표현에 더러는 진실로 자존심 상해 하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져왔다. 첫번째 공통점은,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이었다. 내용이 그렇다면 느낌도 그보다 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에 소

응모 소설, 부실하고 진부한 내용 새로운 세대 감각 표현 못해

설들을 썼는지 알아낼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나마의 내용이 한결같이 진부했다는 점이었다. 새로운 세대가 무엇인가. 지난 시대가 보지 못했고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셋째는, 부실하고 진부한 내용을 구성으로 어찌 어찌 펼쳐내 보려는 의도가 환히 드러나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러한 의도는, 맹목으로 모양이 근사한 그릇에 담아서 맛을 바꿔보

려는 욕심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가작으로 뽑은 '어둠의 늑'도 위의 세 가지 공통점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오랜동안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여주인공의 심리를 쫓는 힘과, 3중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해서, 어쩔나 한순환/이상은

당선소감

투득이나 추은 날렸었습니다. 유난히 겨울이 빨리 찾아드는 우리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차가운 바람이 심술궂게 물러 다니며 내 가슴속까지 이리까지 파고 들었습니다. 구부정하게 어깨를 움추리고 비탈길을 내려 오다가 나는 문득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동안, 소주와 바람과 움추린 내 어깨와 추위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다 결국 함께 내려오는 선배를 끄덕여 소주병으로 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문학적 기대 저버리지 않을 터'

가 몇방울의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자신들의 사고 범위 안에서 위로 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슬픔의 난로는 따뜻하게 피어 올라 있지 않았고, 돈과 시간에 쫓기는 녀석에게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전기난로의 냉기에 가슴까지 식어 가다, 마지막 남은 소주를 가슴속으로 털어 넣고, 붉어진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무언가 하던 것 하나, 바람과 함께 내 코끝으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어 내 머리위로, 내 어깨위로, 내 구두위로 나뉘어 내려 앉고 있었습니. 눈이었습니다. 찬눈이었습니다. 겨울로 들어서는 문득의 힘을 도와준 해 봄니다. 컴퓨터 출력물, 한동안 매점게도 공기를 뽕뽕 일러놓던 추위가 낡은 산물(産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추위 속에서도 뽕뽕 웃음을 짓고서 살아가려는 내 마음에 배달되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심정이 되어 한참을 장중거리다가 우리는 함박은 만큼

가 몇방울의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자신들의 사고 범위 안에서 위로 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슬픔의 난로는 따뜻하게 피어 올라 있지 않았고, 돈과 시간에 쫓기는 녀석에게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전기난로의 냉기에 가슴까지 식어 가다, 마지막 남은 소주를 가슴속으로 털어 넣고, 붉어진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무언가 하던 것 하나, 바람과 함께 내 코끝으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어 내 머리위로, 내 어깨위로, 내 구두위로 나뉘어 내려 앉고 있었습니. 눈이었습니다. 찬눈이었습니다. 겨울로 들어서는 문득의 힘을 도와준 해 봄니다. 컴퓨터 출력물, 한동안 매점게도 공기를 뽕뽕 일러놓던 추위가 낡은 산물(産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추위 속에서도 뽕뽕 웃음을 짓고서 살아가려는 내 마음에 배달되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심정이 되어 한참을 장중거리다가 우리는 함박은 만큼

'94년도 일본 자매교 용국대학 파견 유학생 선발대회

- 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 선발분야: 용국대학 개설 전 학과
 - 선발인원: 2명(학부 1명,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1명)
- 지원자격
 - 본교 학부에 재학중인자로 1년간 휴학이 가능한 자
 -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
 - 학부 전공, 석사과정 전공, 박사과정 희망전공이 일치하는 자
 - 법정상 해외유학에 결격 사유 없는 자
 - 법정상 해외유학에 결격 사유 없는 자
 - 이상의 모든 조건을 구비한 자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소정양식)
 - 학부 및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각 1통
 - 학부 및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통
 - 지도교수, 학과장 추천서 각 1부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일어독해, 작문, 회화시험
 - 면접 및 자질검사
 - 시험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93. 11.24(수) - '93. 12.1(수)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93. 12.2(목)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일어독해 및 작문시험: '93. 12.3(금)
 - 3차 일어회화 및 면접: '93. 12월 중 합격자 및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처: 기획조정실 국제부
 - ※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조정실 국제부로 문의 바람 ☎260-3024)

동계정기수련대회

본교 정각원 후원으로 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에서는 동계방학을 맞이하여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을 벗어나 몸소 불교 수행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수련대회에 관심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불기2537년 12월 14일(화)~17일(금) 3박4일
- 장 소: 경기도 화성군 신흥사
- 준 비 물: 두터운 옷, 세면도구, 필기구
- 회 비: ₩15,000
- 접수기간: 1993. 11.29~12.10
- 접수 및 문의처: 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학생회관 3층) 전화)260-3616(불교학생회 교관)
- 주 최: 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
- 후 원: 동국대학교 정각원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94년도 동국대학교 카렌다

1994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제작

판매처: 서울·경주 캠퍼스 구내서점 및 구내 문구점
가격: 1천5백원

본사주최 제8회 동대문학상 시부문 본상 수상작

이 어 도

김 창 균
(사범대 국교과)

긴긴 세월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잿빛 저녁 노을 뿐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박지로 돌아가는 무언의 행렬, 눈이 시리다.
거친 파도처럼 엄습해 오는 어둠에 나의 배는 심하게 요동친다. 어지럽다.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련한 희망 뿐이다.
이곳에서 갈 곳은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정박지, 아니면 마지막 전설.
벌써 한 친구는 그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고 다른 친구는 전설을 찾아 어디
론가 떠나버렸다. 멀미가 난다.
이제 내가 느껴야 할 것은 좌초된 희망뿐이다.
맞은편 섬이었을까? 아니 그 뒷편 어딘가였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정박지로 돌아가고 있는 그 많은 무언의 행렬들 사이로 반
짝었던 그 섬을 찾아나설 엄두가 나질 않는다. 멀미가 심하다.
그리고 나를 느끼게 하는 것은 위장된 희망뿐이다.
나의 정박지를 향해 방향을 돌린다. 등대의 불빛들이 화려하다.
멀미를 잊기 위해 노래를 한다. 전설은 거짓이 아니라고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시부문 장려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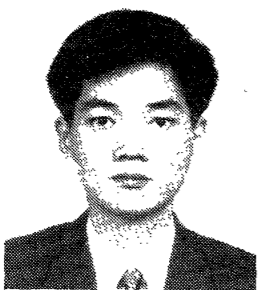
에스카레이터를 오르는 노인

황 선 미
(문과대 국문과)

에스카레이터를 오르는 노인을 보았다
지팡이 짚고 멈춰선 에스카레이터를 걸어 오르는 노인을 보았다

잃어버린 햇살의 마음, 어우러진 한쌍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르크 샤갈전을 보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
계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백발의 시간을 보았다.
시간의 중심무대를 잡고 오르는
지팡이의 후들거림
멈춰선 시간이 내 모습을 비추 듯
노인은 침묵의 시간을 반사하고 있었다.
환하고 따사로운 가을, 마을 고살을 거닐던
뒷집 고모부의 모습이 그 노인에 비취 어렸다
흰 수염발과 마고자, 작두날에 잘린 손가락이 허전한 목장갑을 끼고
뒷집진 걸음걸이, 노인의 고요한 모습은
나를 정지시키는 그 무엇,
환한 평화와 고요가 있는, 그 무엇,
나는 나를 정지시키는 순간을 사랑한다
서울 가을한기에 들뜬 마음이 그리움고
나는 노인의 무심한 걸음걸이가 정지시킨 시간 너머로
그 노인이 되어 에스카레이터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당선소감



김 창 균
(사범대 국교과)

사람들에게는 미지로부터 자기
를 보호하려는 속성과 미지에 도전
하려는 속성이 있는 모양이다. 나
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

시는 자아를 확인케 하는 메시지

어서 현실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
고 만족하려고 노력하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모색하거나 시도해 보려는 생각으
로 마음이 들뜨고는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속에서 동시에
들고 일어나서는 심하게 세력다툼
을 하는바람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사람들이 나
에게 당신은 대학 4년 동안에 무엇
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 없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
았고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열심히 놀
지도 못했다. 단지 해야 할 일과 해
보고 싶은 일 사이에서 우왕좌왕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덧 4년
이란 세월이 흘러 버리고 졸업은
눈 앞에 두고도 막막해 하기만 하
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할 수밖
에는 아무런 대답도 못한다. 그나
나 대학 4년 동안에 가깝게 된 것
이 있다면 그것은 시이다.

어릴 적 어느 책에서 보았던 '시
구인이 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생각난다. 인간의 모습을 그런 그
림과 지구라는 별에 대해서 간략하
게 소개한 내용의 그 메시지는 작
은 위성에 실려 우주 밖으로 보내
졌다. 지구인들이 외계로 보낸 메
세지처럼 나도 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확인 받기 위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도, 그들의 메시지를 읽는다.

나는 그 메시지를 막연하게나
마 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
지는 시가 도대체 무엇인지,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시인지, 그리고 내
가 쓰고 있는 것이 시라 할 수 있
는 것인지조차 말할 수가 없다. 그
것은 시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
르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내가 시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우 환영회
때마다 나의 무지를 일깨워주신 시
동인 '별칭'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
는 지금 무척 부끄럽다.

심사평

'이어도', 삶에 대한 통찰력 돋보여

시부문에는 30명이 4~5편씩 응
모했고, 예외적으로는 20편 이상을
응모한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인원수는 많은 편이 아니지만 작품
수는 1백50편이 넘는다. 그리고 그
작품들은 또 대체로 고된 수준을
이룩하고 있었다. 반가운 일이다.
이런에 응모한 학생들은 비록 입선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담
사 본격적으로 정진한 하면 좋은
시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

김창균의 '이어도'를 본상 당선작
으로 골랐다. 꿈과 환상의 섬 '이
어도' 찾아나서기는 하지만 빈번히
실재하고마는 젊은이의 좌절과 우
동인 '별칭'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
는 지금 무척 부끄럽다.

어도의 "전설은 거짓이 아니라고"
제도전을 다짐하는 자세가 또한 작
자의 정신의 차원에 대한 신뢰감을
자아낸다.

표파적 현상에만 끌리지 않고 그
현상 저쪽에 있는 본질의 세계를

'에스카레이터', 상투적 표현... 옥의 티

찾는 감수성과 통찰력이 작자에게
는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
다. 그러나 함께 보낸 다른 작품은
내용의 밀도나 표현의 완결성이 당
선작보다 많이 저쳐져 있어 아쉽다.

황선미의 에스카레이터를 오르
는 노인'은 장려상이 되었다. 본상
못지않은 수준이었지만 본상은 한

편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이
작품도 작자의 삶에 대한 통찰력이
만만찮은 깊이에 이르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언어구사
와 이미지의 조성능력도 앞날을 촉

망케 하는 바가 있다. "계단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백발의 시간을 보
았다. 1시간의 중심무대를 잡고 오
르는/지팡이의 후들거림" 같은 표
현은 그 좋은 예가 된다.
그러나 군데군데 상투적인 표현
이 옥에 티처럼 끼어있다.
김창호/이항기

“卜債無料, 캠퍼스 고만상담”

HITE의 참맛을 아는 분에 한하여 무료로 봐드립니다.



대학가에 기이한 도사 등장! 전부경, 주역은 물론 서양의 점성술까지 통달하고
소백산맥 지하 150m에서 득도한 후 우리 대학인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나타난,
그 이름하여 해가도사!

그가 상담한 예를 보면

Q : 점점 멀어져 가는 그녀, 붙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해가 : 떠나는 여자와 버스는 뒤쫓지 말라! 곧 도오는 법이니...

Q : 대학원을 가자니 사랑이 우는데, 취직을 해야 할까요?
해가 : 사랑은 달콤하나 빵과 함께 먹어야 하느니라...

Q : 이상하게 학점이 안나오는데 어찌 해야 하올런지요?
해가 :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보다 주역이 없는
자가 더 불쌍한 법이니라...

이렇듯 복채도 없는 상담에 명쾌한 해답만 주니 어찌 인기가 없겠는가?
그야말로 문전성시, 한마디로 박터진다는데...
하나 그를 만날려면 지켜야 될 두가지 조건이 있더라.
그 하나는 꼭 지하 150m의 암반천연수로 만든 하이트란 맥주로 속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둘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라.
그야말로 지혜가 있는 자만이 알아들으리라...

지하 150m의 100% 암반천연수로 만든-

하이트 맥주

본교 박물관 30주년 기념행사

국내 유일 불교박물관 특성 살려

고려불화 우수성 공유하는 자리

“불화통해 민족 내면세계 볼 수 있어”

1963년에 개관한 본교 박물관은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고려불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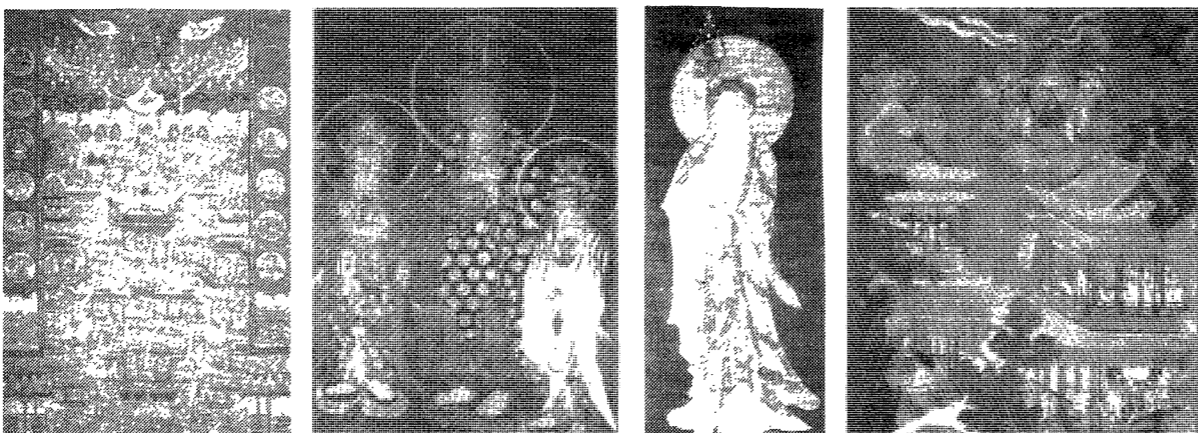
국내 유일 불교박물관이라는 특성을 살린 이번 행사에 대해 홍윤식(역사교육)박물관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있는 전시회로서 고려불화의 우수성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간단히 소개한다.

3년여의 협의와 준비끝에 마련한 이 행사는 일본불교대학, KIB, 호암박물관과 공동으로 주최해 다음달 11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66일간 호암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국보7점, 보물12점을 포함한 총 60점으로 불화와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경본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고려불화는 국립박물관과 호암미술관이 몇몇씩 보유하고 있으나 전시회를 열 만한 수량이 되지 못해 일본에서 다수 대여해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될 것이다.

일본은 자문서, 서복사, 선림사 등에서 1백여 점의 불화 현존



사진은 박물관이 개최하는 '고려불화 특별전'에서 전시될 작품들이다. 차례로, 관경서분본상도(관무량수경의 내용), 아미타삼존도(아미타불·관음·세지보살), 지장보살도(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관경서분본상도이다.

보유하고 있으며 1978년 첫 고려불화 전시회를 거쳐 그후로 커다란 호응을 얻어왔다고 한다. 사실 이번이 일본에서 내역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렇듯 불화는 단순한 그림으로서의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지니온 내면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한 수 있다.

중요한 문화유산이니만큼 두 작품 당 한개의 전열장을 특수 제작, 온도·습도 조절로 최적조건을 유지한다.

일본은 자문서, 서복사, 선림사 등에서 1백여 점의 불화 현존

회화는 사회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어 그 시대의 독특한 신앙상과 불교문화의 융성을 엿 볼 수 있다”고 한다.

관무량수경을 설하여 된 동기를 비단으로 그린 '관경서분본상도',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해 주는 명부의 구제로 각각 받는 지장보살도, 보물 3백90호로 지정돼 본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범죄경의 내용을 그린 '감지금니묘법연화경' 2점상도 등.

이렇듯 불화는 단순한 그림으로서의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지니온 내면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한 수 있다.

중요한 문화유산이니만큼 두 작품 당 한개의 전열장을 특수 제작, 온도·습도 조절로 최적조건을 유지한다.

간을 비롯 전시회와 더불어 각종 행사가 마련된다. 전시첫날 '한국문화와 고려불화'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삼성생명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어 홍윤식 박물관장의 '불화와 한국문화'와 함께 이기백교수의 '고려사회의 문화' 京都대학교의 이태준교수의 '한국문화의 일본 유입경로 및 그의의' 등 7명의 연구원으로는 부총장인 정이대, 박도화연구원은 “이번 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불교문화조사에 본교박물관이 주도적 위치를 점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한다.

앞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교미술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발한 해외소재 문화연구 조사, 국내 전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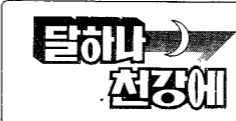
(김소영 기자)

발려주는 일본측의 입장은 고향방문시키는 심정이라고 한다. 이는 일본문화의 뿌리가 한국문화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있어 한가지 아쉬운 점은 30주년기념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본교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역망당한 2명의 연구원으로는 부총장인 정이대, 박도화연구원은 “이번 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불교문화조사에 본교박물관이 주도적 위치를 점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한다.

앞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교미술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발한 해외소재 문화연구 조사, 국내 전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김소영 기자)



감잎차를 마시면서

9 76 수 (농과대 입학과 교수)



따뜻한 한잔의 차가 생각나는 계절이다. 요즘 감잎차가 좋다고들 한다. 비타민 C가 많고 카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 또한 그윽하여 차집에도 등장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인스턴트 용료가 어찌 직접 해보는 운치를 따를수나 감잎차는 7월에 감잎을 따서 찌고 말려 보관하였다가 스산한 바람이 부는 계절에 꺼내어 끓이면 된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어릴때 살던 집 마당에 10여년 전 우연히 감씨를 던져 두었는데, 이듬해 싹이 나서 몇년 전부터는 제법 감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땅 어디에도 잘 자라는 이 감나무는 동양 3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 옮겨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

을 수 있으니 효(孝), 서리를 이기고 만추까지 버티니 절(節)의 오상을 갖춘 나무로 칭송받았다. 또한 나무가 검고(黑), 잎이 푸르며(靑), 꽃이 노랗고(黃), 열매가 붉으며(赤), 꽃갈래에서는 흰 가옥(白)이라고 하였다. 이를 감나무의 오색(五色)이라고 하였다.

이 감나무에 따른 우리의 민속신앙도 여러가지이다. 백년된 감나무는 천 개의 감이 열린다고 하여 감나무 고풍(古風)은 자손의 번창과 아들 낳기를 비는 기자목(祈子木)이 되고 있다. 오뉴월에 노란 감꽃이 떨어지면 이 감꽃을 주워다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이 역시 아들 낳을 비는 습속의 하나라 하였다. 감나무를 베면 그 목리(木理), 즉 무리가 다양하여 앞날의 길흉을 짐치 보기도 하였다. 한양들은 붉게 물든 감나무 잎에 연문(戀文)을 써서 보내기도 하였다.

감나무에 대한 기록으로는 계림유사(鷄林類聚)에서 처음 나오며 허균(許筠)은 도문제작(陶門大器)에서 넓적 같은 은양홍시가, 뾰족 같은 남양홍시가, 검은 감은 지리산의 오시가 유명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열매 뿐이라, 감나무의 실용성은 사실 그 나무의 단단함에 있다. 그래서 예부터 방치를 만드는 데 있어 감나무를 으뜸으로 쳤으며, 요즘에는 감나무의 단단함과 탄력으로 골목채 중의 우드헤드도 우리나라산 감나무를 최고로 칭하고 하니, 우리는 자연의 혜택을 단단히 받는다 하겠다.

감잎차를 마시면서 떠오르는 상념을 적어 보았다.

읽을 수 없는 한권의 책 — 류병주 '대학 문에 서서'

진정한 고민 제공한 책



항상 이놈의 가을이 문제인 것 같다. 이른바 가을을 탄다는 것이 그것이고, 더욱 좁아지는 대학문의 넓이가 그것이며, 해마다 9시 뉴스를 장식하는 머리카락은 동흔현실이 그것이며, 월동준비 작정에, 늘어나는 우리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또한 그것이다. 흔하듯 수학의 계절이라고 말하는 가을이 웬지 우리들에게는 낯설은 느낌이 드는게 사실이다. 거꾸어 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울 나는 것이 더욱 많은 것이 우리네 수학의 계절 가을이 아닌 것인가?

갑자기, 웬 가을 타령이냐고 그럴테지만 다 이유가 있다. 애기인즉슨 어느날 느닷없이 '월동준비'라는 것을 받게 되었고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한권의 책'이라는 글을 써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놈의 '책'이 무엇이 왜 나왔겠는가?

가을이라는 계절의 까닭인 것이다. 사실, 누구에게 책을 권할만큼의 읽람도 아닐뿐더러,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독서 또한 미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을 밝히며, 주제넘은 것인줄 알면서도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의 심정을

이해하리라 믿어본다. 항상 후배들은 선배들을 앞서가나 말이다.

이상무씨의 '읽지 않는 소년'을 무척 감명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가 하면, 더 어릴적 읽었던 황순원작 '소나기'를 읽으며, 많지도 않은 생각이 일어났다. 인간사상을 보고나서는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 적도 있었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을 보고는 철없는 고민에 빠지기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위수, 한수진, 이문열을 거쳐 막 대학이란 곳에 들어와 어땠다고 있을 즈음에 어느 선배로부터 건네받은 책 한권이 있었는데 바로 '대학문에서 서서'라는 제목의 얇은 책이었다. 그야말로 대학문에서 서서라는 무척 반가운 일이었다.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들

어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대학이란 곳의 이상과 그 책속의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철없는 대학교 신입생은 많은 고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고 한다.

항상 문제의 핵심은 가장 상식적인 사실에서부터 풀려나가기 마련이듯이, 답답하기만 했던 그 책속의 이야기들은 나의 대학생활속에서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고, 때로는 건지한 고민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대학'이라는 곳은 아무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곳 같은 생각이 들지만, '대학'이라는 가능성속에서 엄청난 책임으로 우리를 채찍질하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대학생'이고 싶어했던가? 어느 노태가사처럼 '요즘같은 세상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학'의 모습은 조금도 쉽게 진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신세대'라는 이름에 걸맞은 멋진 대학생활을 기대하며, 언제나 자신의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모습 또한 잊지 않기를 부탁해본다.

류병주 (경주대 제대 총학생회장·철 93졸)

◇실현극의 뿌리내리기

'우리가...' 배우 표정·행동만 보이는 침묵극 장면따라 무대 상승·하강 '짜장면'

기존의 연극계에서 언어를 축소·삭제하거나 단순한 구경꾼이던 관객을 단숨에 일부로 등장시키는 등의 변화를 도입하는 것을 '실현극'이라 한다.

국내에서 공연된 실현극은 지난 9월 막을 올렸던 기국서의 작품 '작란이 흥행에 실패했으나 현재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했던 시간(김아라 연출)과 짜장면(김상수 연출) 두 작품이 공연되고 있다.

'우리가...'가 공연되는 무대에는 89개의 벤치가 놓여있고 그중 하나에 거지가 앉아있다. 나머지 배우들은 요구르트, 야종마, 생선장수, 삿대, 춤추는 신랑과 신부로 분장하고 벤치에 앉는다. 거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앉아있지만 그는 이 관객과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침묵'과 '탱고'가 가장 주



요한 전담메로 쓰이는 연극 '우리가...'는 국내최초의 침묵극이다. 배우들의 표정과 행동 그리고 음악과 음향으로 관객의 심상에 떠오르는 내면의 언어를 끄집어내려는 시도이다. 관객의 수는 50명으로 제한이 되며(이 또한 국내최초의

◇새로운 형식을 선보이고 있는 '우리가...'와 '짜장면'은 변화를 실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이다)관객이 입장을 하면 연극이 시작되고 이들에게 조명을 비추기도 하는등 관객을 연극의 일부분으로 표현한다. 무대안쪽에는 환상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통로로 미끄럼틀을 가져다 놓았다. 미끄럼틀을 타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성정숙

의 아브라함과 이삭, 모차르트의 오페라 '미살피리슈의 파파게노' 등이다.

'우리가...'의 원작자는 독일의 페터 한트케이다. 원작 '우리가...'는 30명의 배우가 3백명의 각각 다른 인물로 분하여 카우보이, 페르난도, 나무꾼집단 등의 차례로 등장하지만 국내 작품으로는 너무 이국적이라 삭제했다.

또하나의 실현극인 '짜장면'은 왜곡된 역사에 대한 끊임 없는 반성으로 만들어 낸 작품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은 짜장면집에서 일하는 소박한 사람들과 이들을 억압하는 폭력사상, 전사의 이미지로 이름 다음과 사랑을 전하는 '자전거'라는 여자이다. 평화롭게 살던 이들은 폭력사상의 등장으로 이들의 총격전을 벌인다. 무대는 총소리와 불꽃으로 소란스러워진다. 조금후 비장한 음악과 함께 죽었던 짜장면집 사람들이 환생한다.

와 불꽃으로 소란스러워진다. 조금후 비장한 음악과 함께 죽었던 짜장면집 사람들이 환생한다.

'짜장면'은 비장식적이고 왜곡된 상황을 나타내는 은어이며, 작품은 50년대의 거창양민 학생사건과 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 가해진 실현은 무대의 상승과 하강이다. 연극이 시작되면 텅빈 무대만이 보이다가 소음과 함께 솟아오르는 짜장면집이 보이고 등장인물인 고문을 당하는 장면에서는 무대가 다시 내려가 버린다.

국내공연에서 실패한 적이 있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실현극을 선보이고 있는 '우리가...'와 '짜장면' 두 연출가는 흥행도를 제로로 다시한번 실험에 착수했다. (이유리 기자)

에스에스패션

“다음번 체이스퀼트 광고엔 또 어떤 동아리가 나오나?”



1993 본년 AIESEC (국제경상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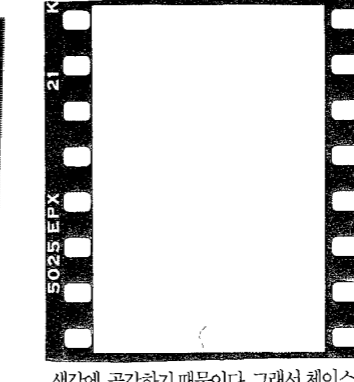
1993 여름엔 부산 수산업 취업공과



1993 가을엔 음악동아리 예지



1993 겨울엔 연극동아리 라임라이트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 동아리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체이스퀼트 광고는 대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젊음은 정직하다. 높고 큰 목표를 오로지 자신의 성실한 노력으로써 이루어간다. 이들이 체이스퀼트를 읽는다. '정직한 옷'의



생각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이스퀼트 광고엔 직업모델이 아닌,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온다. “사회는 혼자 사는게 아니잖아!” “바다는 넓다.” “음악이야말로 노력만큼의 응답받는 가장 정직한 분야이다.” “좋은 연기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때 나오는거야!”

체이스퀼트가 '정직한 옷'의 철학을 고집하는 한, 광고 역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담을 것이다. ('94년도 체이스퀼트 광고와 함께하고 싶은 동아리는 매장에 비치된 신청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CHASECULT THE SOFT TRADITIONAL

영학의 퍼려독스

로만 폴란스키 감독 '비터문'

통렬한 자기고백 영화 "포르노 취급은 잘못 이해한 처사"

현대 영화의 표현방식은 어디까지 왔는가. 외설시비로 뜨거운 논쟁이 불었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비터문'은 얼마전 수입시작으로 물의를 빚었던 프랑스 감독 루이 말의 '데미지'와 더불어 성표현의 노골성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



만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있는 상업적 흥보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느낄 수 있다. 이 영화가 소재로 다른 변태적인 성행위의 표현은 거의 주제의식에 밀려나 다가가 있는 것인데, 성의식을 관망하는 포르노 취급을 하는 일부의 입장은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추악하고 더럽고 비열한 이기적인 서구 중산층 남자와 그에 배반당해 복수의 일념으로 살아가는 여성과의 변태적인 게임은 젊은 세대의 부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설기찬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 영화의 접근법과 표현방식이 특이했던 것이다. 이런 심각한 영화를 청소년들이 볼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걱정할 게 없고, 오히려 허세와 부도덕적으로 무장한 성인관객들이 외설을 빌미삼아 자신들의 치부를 덮어버릴까가 더 두려운 것이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 영화평론가)

연영과 졸업영화제

투철한 작품정신으로

3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예술대학 연영과 졸업영화제는 11월을 맞이하여 22일(월)~27일(토)까지 졸업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미비한 극장시설과 열악한 기자재의 환경속에서도 '안되는 것은 없다'라는 정신력과 선배배, 동기간의 끈끈한 정으로 본교 연영과를 지켜 우리들의 4년간의 경험과 노력, 피와 땀이 한곳으로 집중된 이번 영화제는 학생영화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고도의 기술력과 작품정신으로 투철하게 반영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 소개를 간단히 하면 우선 학생 SF영화 '초콜렛을 지켜라'로 신영화계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오정민, 배하준 연출의 '혼신'은 말 그대로 진화기의 혼신으로 인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일들을 다시 찾았다는 내용이다.

두번째로 최창호, 김승우 연출의 '불법주자는 한 중국교포의 눈을 통해 비추는 우리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몰달 Complex'와 신데렐라 Complex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영화이며 화려한 캐스팅 역시 이 영화의 장점이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병만 연출의 24D 이번 작품은 필립핀 당시 파벌 정변들의 고압적 화성 유류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직접적이고 강렬한 장면으로 관객들에게 충격을 호소하는 이 영화는 실제 고압제의

약품명인 24D를 제목으로 내걸어 관심을 끈다. (이 영화에서 불만만 장면중에는 기차를 따라잡는 수퍼우먼이 등장한다.)

여하튼 이번 영화제를 끝으로 떠날 이들이지만 우리들은 다시한번 힘모아 외쳐본다. "동대의 필름은 멈추지 않는다!"

최창호

(예술대 연영과·제31회졸업영화제 기획부장)

민가협 5회 공연

문성근·정태준 등 출연

민가협은 다음달 12일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한양대학교 율령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문성근이 출연해 양심수 문제를 주제로 한 '그것이 알'과 '심각'을 상황극으로 보여주는데 민가협은 이를 위해 조직된 시극사간을 2개월간 조사했다고 한다.

'도쿄쇼-월드의 이야기'라는 이영희, 박형규, 이철, 김근태 등이 출연하여 양심수 문제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85년 12월 12일 창립된 민가협은 9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이 날을 '양심수의 날'로 선포하기로 했으며 공연시작 전에는 양심수 동호모임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출연자는 전인권, 권영희, 정태준, 박은옥, 안지현, 인공우성 등의 가수와 배우, 사회 각계인사들이다. (문화부)

미술학과 학술세미나

모더니즘 개괄설명

본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학생회(회장=이종필·서양화3)는 오는 24일(수) 오후 5시부터 동극관(L101)에서 '제6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국현대미술에 미친 영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세미나는 이제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관심의 제정립과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학생들의 학부과정에도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주제 강연을 맡은 임철(미술평론가)씨는 주제 요지를 통해, '현재의 구조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의 부상은 어떻게 없는 사회·문화적 현상인 이렇듯 진행되는 이명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예술하고 비논리적이더라도 다시 열려 있는 주제적 시각에서 재상·정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국적 완성'이라는 결론과 내린 누가 결정짓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만들고 실천해야 할 문제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번 강연은 서구의 계몽주의의 모더니즘에서 현대 및 한국미술의 모더니즘까지 개괄적 설명 및 해석과 함께 강연자와의 질의 응답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환 기자)

문화단신

공연안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작가 공지영의 페미니즘 소설을 각색한 작품. 원작가, 각색자, 연출가 모두 30대 남녀로서 연극적 현실이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는 이들은 김수성과 열정을 다해 30대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이 연

극을 기획한 여성문화예술기획은 여성과 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을 해온 여성단체이다. 소극장 강강술



래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747-7491

◇리얼리즘...호주의 대표극단인 PLAYBOX가 세익스피어의 '리어왕'을 공연한다. LECH MARKIE ICZ가 연출하는 이번 연극은 교실이 무대이며 리얼왕이 죽은 시점부터 시작되는 극중극형식으로 꾸며져 기존의 고전극에 대한 선입견을 깨줄 것으로 보인다. 원작을 재해석한 연극의 내용은, 진정한 학습은 시행착오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행착오의 순간마다 악



이 작품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12월 2일부터 5일까지. 575-8321

독자의 신문

공은 많다. 어떤 이는 이게 이끌어 가지 못할 일이라니 따라가리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어떤 이는 합출리치 말고 변화를 꾀어나갈 모욕의 힘이 되어야한다고 충고한다. 현재 대학신문은 어디로 가야 할 지 누구의 손가락을 주목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독자시대에 사는 지금은 그것이 타류는 아닌 서둘러 조류를 바꾸어 배를 띄워야 한다고 다수는 입을 모은다. 신중하게 진로를 찾아야 할 시기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독자의 요구를 알고 수용할 완벽한 자세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대대 우리의 독자는 무얼 바라고 있는 것일까. 우리사회의 총체적 변혁속에 그들이 바라는 운영의 혁신과 지면의 변화는 무엇일까. 원 대학신문을 읽고 있는 이들이 독자

들의 발전치나 다양성을 간파하고 있다는 비판이 다가오는 겨울날씨만큼이나 편집국을 강타하고 있다. 무엇이 대학신문 일관들의 문제일까. 그렇다고 설블리 급류에 휩쓸린 채 허우적거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독자들의 이해와 요구와 무관한 배를 옹고집으로 방향타

를 부여잡지도 않으려 한다. 단지 변화하되 물리적 변화나 단대없이, 중심없이 흔들려서는 안될 일이란 점을 되새겨 불평이다. ▲한 대학신문의 독자 설문평가가 눈길을 끈다. 흑백논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시대의 달리 지금에 와서도 구태의연한 논조에 대해 체격적 울을 가하고 있다. 학내언론이나 문예창작의 유고귀, 올바른 대학

진상과 문화에 대한 기사가 부족하다고 기자의 계은 발을 닦았다. 안정할 수 없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객관적으로 포장을 독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설블리 급류에 휩쓸린 채 허우적거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독자들의 이해와 요구와 무관한 배를 옹고집으로 방향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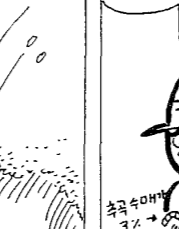
냉해



이게 뭐여?



수업개방



농산물



사연



최 경 인 (38)

“大東國의 발전이 韓國佛敎의 발전입니다”

동국대학교 개교100주년기념사업후원회 任員 公告

- 고문 (역대 재단 이사장 및 현 임원, 역대 총장, 역대 동창회장 및 고문, 23개 불교종단 대표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국신도회장)
명예회장 (모교총장)
회장 (총동창회장)
부회장 (총동창회 부회장)
자문위원 (총동창회 지도위원 및 운영위원, 동문 국회의원, 모교 총무원, 재단 사무처장, 각 교단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 간부 및 25개 교구본사 주지, 불교계 언론사 장, 조계종 전국신도회 부회장 및 사무총장)
사무국장 (총동창회 감사, 모교 재계동문회장)
전석중 박수철 이종찬 이철용

연락처: 총동창회 사무국 110-300 서울특별시 중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전화 733-3991~3 FAX 733-3992
개교 100주년기념사업본부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본관 4층) 전화 260-3690, 3490 FAX 260-3691

1993년 11월 5일
동국대학교 개교100주년기념사업후원회 회장 黃明秀